

국회헌정관에서 제8회 남·북 조찬기도회 가져



남·북 조찬기도회가 대한민국 국회헌정관에서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 30분 많은 교계 지도자들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본회 상임대표회장 김윤기 목사가 사회를 맡고 국회조찬기도회장 황여우 의원이 개회사를, 심하보 목사(한국교회학회연구위원장)가 기

또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 련맹이 보낸 축하문 대독을 서울연회 직전회장 박희달 장로가 맡았으며, 특별기도회는 1)남북통일과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국회의원 이정재 의원, 2)남북한 지도자를 위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성현 의원, 3)남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해훈 의원 등이 맡았다.

이어 특송, 파송의 노래를 광야의 소리 테너 이 훈 등이, 개혁신교총회 총무 박남수 목사가 헌금기도를, 남북조찬기도회 상임대표회장 김윤기 목사가 인사를 하고, 다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합창을 하고 개혁신교 총회장 박영남 목사의 축도로 행사를 마쳤다.

이 날 상임대표회장 김윤기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이라는 아픔이 많은 상처를 안고 남과 북이 분단된 채 병전적 갈등을 계속해 왔으며, 경의선과 동해선이 개통이 되고 금강산의 문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기동되는 등 남북간에 막혔던 왕래의 길이 트이기 시작이 된 듯하다. 이 일로 해서 7천만 민족의 통일의 열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앞에 펼쳐진 역사적인

기성 102년차 총회 총회장 백장흠 목사 추대, 부총회장 전병일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 102년차 총회(일시: 2008.6.21.(토) ~ 29.(목) 장소: 수원교회)가 21일 오전 10시 수원교회에서 개회했다. 백장흠 목사가 추대됐다. 또 목사 부총회장은 전병일 목사가 당선됨으로써

성결교단 창립 2세기를 향한 임원회가 구성됐다. 기성 총회는 27일 경기도 부천시 서울신대에서 102년차 총회를 개최하고 선교 2세기를 시작하는 교단의 다양한 현안을 다뤘다. 총회에서는 목사 부총회장 자격 논란으로 관심이 됐던 임원선거를 비롯,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후속 조치, 헌법개정안 등이 다뤄졌다.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받아 당선된 백장흠(66·한우리교회) 목사는 “선교 2세기를 맞아 성결 교단은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을 가져오는 해가 될 것”이라며 “성령충만함을 통해 성결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 목사는 또 지난 100주년 때 제시된 사회적 성결 추구라는 교단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동시에 말씀과 성령충만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대위원 833명이 투표에 참가해 1차 투표에 이어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며 전병일(57·

정음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전 목사는 “새 시대 경쟁력 있는 교단으로서 밝은 미래를 향한 초석이 되겠다”며 “그런 면에서 교단의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4일 서울천호동교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당시 부총회장 임후보 이유로 명예가 아닌 봉사와 헌신 때문에 출마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로 부총회장은 홍진우(67·신덕교회) 장로가 당선됐다. 홍 장로는 교단 브랜드 이미지 강화, 새선교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그밖에 서기에 문정삼(소망교회) 목사, 부서기에 구금섭(큰마루교회) 목사, 회계에 이진구(서대선교회) 장로, 부회계에 조병철(성북제일교회) 장로가 당선됐다.

한편, 여러 안건 가운데 교단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건에 대한 질의 응답에는 대회 규모가 컸던 만큼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감사를 맡았던 지형은(성락성결교회) 목사는 대내외적 홍보 미비와 예산 교단과의 연합 대회 불발 등을 지적했다. 대의원들도 가시적 교회성장 결과에 대한 의문 제기과 함께 예산과 하나 되지 못한 이유를 물기도 했다. 102년차 기성 총회는 28일까지 계속되며 서울신대 총장 송인, 지방회 분할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6·25 제 58주년 맞아 참전용사 초청

제 58주년 한국전쟁 상기 및 한미우호증진을 위한 예배와 환영행사가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새에덴교회(신강석 목사본당에서 6.22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진교분 박사(미연방 평화봉사단 특별정착기획실장)사화로 1부 예배가 새에덴오케스트라의 환영 팡파르가 울리는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6.25 전쟁 58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에 참

여 했던 참전 용사들을 초청한 예배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6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새에덴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소 목사는 58년 전 우리 민족에게 폐하의 땅이었다고 말하고, 회색빛 잿더미 속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통곡하였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아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산도 강도 하늘도 얼굴을 돌리고 울어버린 조국, 대한민국이었

다. 그러나 그 처절한 고난과 시련의 땅에도 다시 꽃은 피었고 희망의 봄은 다시 오기 시작했다.

6.25 전쟁의 참혹한 비극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참전용사 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와보라!! 기적의 현장으로

찬양치유(무료)시범설명회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렘17:14)

주강사 장 창 윤 목사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총재 / 서울열린찬양교회 담임)

매주 토요일 오후2시~5시 열린찬양교회
(구로보건소, 구로5동 동사무소옆 100m)

찬양의 비밀을 벗긴다
리듬이 주는 메시지!!! 멜로디가 주는 메시지~!!!
02)862-3181, 010-5678-995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찬양신학연구원

대학원장 신학박사 고충진 박사 학장 음악박사 장창윤 목사
152-859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30-22 ☎02)862-3191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총재 장창윤 목사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
152-859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30-22 ☎02)862-3181

■ 목 양 칼 럼 ■

역사의 아픔을 뒤돌아보며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담임, 시인, 목회학박사

저는 지난 주간 총회에서 실시하는 교역자 하계 수양회 강사로 부름 받아 필리핀 마닐라에 다녀왔습니다. 첫날은 늦게 출발하고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바람에 차가 막혀 비행기를 놓쳐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비행기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교회 일을 잘 마무리하고 돌보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수양회 인도를 하는데 오전, 오후에 관광을 갔다 오느라 피곤하고 지쳐서 눈꺼풀이 떨어지는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 다. 주회 측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피곤한 날이라고 목사님께서 강의를 짧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교를 짧게 하면서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이 강사로서는 달래마이고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회 시설이 특급 호텔도 아니고 조명이 밝지 않고 음침해서 졸기에 딱 좋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해 줘서 첫 시간부터 청중을 장악하고 도전을 주고 심금을 울리는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관계상 준비한 것을 100%는 다하지 못하고 발휘할 수는 없었지만 짧은 시간에 비교적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처럼 하루 동안 호텔에 머물면서 다다음주에 있을 교역자 수련회와 장로회 수련회 교안 준비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날은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의 정치자문 위원이자 법제정국장으로 수고하는 텐데로 목사님이 축사를 하러왔어요. 이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50~60년 전만 해도 필리핀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다. 과거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필리핀은 1만 2천명이나 파병을 하여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으로 싸웠다. 그때 필리핀의 군인 1200명 이상이 한국전에서 싸우다 죽었다. 지금도 그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십수년 만에 경제성장을 이루어 이제는 필리핀을 도와주고 있으며 필리핀의 수많은 사람

들이 한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필리핀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을 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와서 선교를 해주고 있다. 우리는 6.25전쟁 때 1만 2천명의 군사를 보내어 육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필리핀의 영적 전쟁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요지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궁에 있는 뻬으로 1000명이나 되는 한국의 선교사들의 비자를 받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어 필리핀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고 필리핀의 복음화를 위해서 돕고 있으니 한국은 얼마나 복 받은 나라요, 행복한 나라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기간 동안 호텔에 머물며 강의안이나 준비하고 있다가 그 축사를 들은 다음에는 당장 선교사 한 사람을 불러 필리핀 국립묘지를 찾아가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묻혀 있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사실은 공원 관리원들도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묘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무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평평하기 때문에 정확한 곳을 알 수 없어서 대략 비슷한 부분을 들러서 바로 또 공원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잠깐만 들러서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을 났는 순간부터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그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분들의 희생과 피와 눈물의 결과로 자유대한 남한에서 번영을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대한의 조국을 간직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감

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제가 필리핀에 와서 강의도 하고 돈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황으로 올 때 기사와 가방을 들어주는 공화직원에게도 필리핀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팁을 주며 “뱅크, 뱅큐” 인사를 몇 번이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필리핀 마닐라에는 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보존의식이고 역사의 아픔을 상기하며 은혜를 이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작년에 이어서 참전용사초청 행사를 합니다. 이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수준과 품격을 높이고 교회의 수준과 품격을 높이는 행사입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교회 부흥에 지장이 없고 안 하고도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성장했으면 민족을 향한 시대 정신과 보존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아픔을 함께 하며 국가와 민족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적어도 우리가 역사와 사회를 책임지고 빛을 발하는 의식 있고 역사를 리드해가는 교회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3시부터 다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교회 품격과 국가의 품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해도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를 책임지고 리드해가는 품격 있는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수준 높은 성도,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 3시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합니다.

서울칸토라이합창단 제 12회 정기연주회 가져



서울칸토라이합창단(단장 정유근)합창과 경기심포니오케스트라(단장 남궁주용) 협연으로 제12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6월 24일 저녁 7시 서울 영락교회에서 있었다. 이날 연주회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작품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격정적인 요한수난곡으로 많은 은혜와 감동의 무대가 되었다.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대 작곡가이다. 그러한 바흐의 요한수난곡은 군중의 합성을 합창화 한 것으로 다른 수난곡에 비해 격렬한 극적 효과와 박력이 넘치는 음악의 표현 등으로 드라마틱하고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며 도전적인 현실성과 열기로 가득한 음악과 더불어 인물을 다룸에 있어서도 극도의 논리 정연함을 갖추어 작곡가의 명예뿐만 아니라 신성한 영광을 위하여 나무랄데

없는 기념비적인 고난이도의 작품으로 연주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다.

게다가 종합예술로서의 연주회와 클래식 음악회가 갖는 정적인 식사할에서 벗어나 무대연출, 의상, 영상 등이 함께 어울어진 고품격 공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음악회가 되었다.

1 면에서 계속

6·25 제 58주년 맞아 참전용사 초청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새에덴교회에서 제 58주년 한국전쟁 상기 및 한미우호증진 예배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먼 길을 와 주신 참전 용사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한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을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당당한 민주주의 나라로 성장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치를 지키며, 더 활력 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참전용사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이 가는 길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길 당부하며,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뜻 깊은 시간 보내기 바라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제2회 한국전쟁기념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참전 용사분들께 인사드리며, 모든 세대 속에 우리 용사들은 자랑스럽게 우리의 건국기념을 받들고 우리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발을 내딛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는 자유의 적을 무너뜨리는 데 공헌을 했으며, 다가올 세대를 위한 평화의 기초를 닦는데 큰 도움이 됐다. 존엄과 관용, 결의를 가지고 역사의 부응함으로써 우리의 참전용사들은 자유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위대한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나는 모든 참전용사와 그의 가족들을 기꺼워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한국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미국의 영웅들이 참고 견딘 고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들의 헌신이 명예롭게 해주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Laura와 저는 이 특별한 행사에 우리의 최고 의 소원을 담아 축전을 보내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고 우리의 군대와 조국에도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축하를 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진교로 박사(미연방 평화봉사단 특별정책기획실장)의 사회로 황우여장로(국회의원)가 기도, 김중대 장로(전 합대사령관)가 성경봉독,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아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란 주제로 말씀

을 선포했다. 이어서 진행된 2부 축하와 격려는 다같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미 부시 대통령의 축하메시지에 이어 김용실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와 김홍철 장로(재향군인회 부회장, 전해군참모총장)가 기념사, 김영진 장로(국회의원,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와 서정석 용인시장이 축사를 했으며, Louis Dearth, Sr.(미 재향군인회장)과 참전용사 대표가 답사를 했고, 감사패 및 매달 증정으로 이어졌고, 정병식 장로(새에덴교회 준비위원장)가 광고 한 후 사기형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가 축도하고 마쳤다.

지저스타임즈

jstimes.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D-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 · 편집인: 정기남 목사

고 문 : 임원환 목사(길보리교회), 최홍철 목사(도곡교회), 김동진 목사(동신교회)

이 사 장 : 전영준 목사

성원이사 :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한영우 목사(임피뉴교회), 권세호 목사(성도교회), 박복수 목사(조지타운교회), 정재규 목사(대석교회), 오종실 목사(홍성제일교회), 임원석 장로(주)에우일, 장영기 목사(서울중앙교회), 박남수 목사(신촌교회), 김동락 목사(소광교회), 조광표 목사(목포민내교회), 장한국 목사, 이종구 목사, 김평호 목사(일두광주교회)

후원이사 : 권태국 집사(권태국 지파), 박우만 목사(금주학교장), 서정원 목사(공덕교회), 홍영균 집사(이업인), 임원석 목사(노원교회), 전형우 목사(세기교회), 정인호(금호상조회), 배근욱(간척실업사), 유민수(회사원) 손우진 집사(회사원), 권영근 목사(두란노교회), 김성익 목사(신동교회)

대전지사 이사장: 박영우 목사(대전영광교회 경목위원회 상임총무), 충청지사 이사장: 오기선 목사(양문교회), 논설위원: 송국성 청송현 목사(웨신 총무) 부국장 최희철 목사(사신길신앙교회) 배경락 목사(서북교회)

해외지사 : 우건태 지사장 : 김기림 선교사, 호주 지사장 : 오종수 선교사

미국 위상면 지사장 : 정영선 목사, 일본 지사장 : 전동욱 목사(예정)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우정빌D/12층 전라(주)에우일 (內) 지저스타임즈
인터넷신문방송 WWW.CPJ.KR (E-mail : webmaster@cpj.kr
전화: 011-468-6574 / tel. 02) 741-0031 fax. 02) 763-0221



(주)금호상조

1566-4428

“이제 경조사는 웰빙토탈서비스에 맡겨 주세요”

운구에서 장지까지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장례절차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할 때 내 가족의 일처럼 세심한 준비로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주)금호상조는 관혼상제(장례문화, 결혼문화, 잔치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격 현실화와 고품격 서비스로 예약 및 행사를 대행해 드리는 전문회사입니다.

일 반형 20,000×120회
고 급형 30,000×100회
최고급형 50,000×100회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출동 대기중입니다.

직 원 모 집			
직 책	인원	자 격	보 수
지점장	0명	관리(조직)능력자	기본급+관리수수료
팀 장			영업수수료+각종행사비
상 조	0명	무경험가능 30~50대 (보통경력자고수익)	기본급(출근비)+영업수수료
설계사			각종행사비
지 사	0명	회사규정 심사	영업비+관리수수료+ 각종혜택 등 지원



관혼상제 토탈 웰빙 서비스 -

(주)금호상조

장례 행사 진행 절차

갑자기 닥칠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갑자기 닥칠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가입고객 전산입력 금융결제원 고객충증거래 신청

(주)금호상조증서 및 약관발급(우편발송 7-15일 소요)

월납입금×100회 = 계약금액(회원 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월납입금×120회 = 계약금액(회원 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임종시 (주)금호상조로 전화접수 고객센터 전곡 1566-4428

상환접수 회원조회 고인성명 및 병원확인

장례지도사 현장 파견

장례용품제공, 고인 시신수습및 빈소미련, 유족과 협의 종료, 기봉에따라서 알맞는 행사진행

염습및 입관, 제사 및종교의식 진행

발인제 시간에 맞추어 장의차배차 장지로 출발안내

서비스 만족도 조사

(주)금호상조 가입혜택 종료

당사 대행 업무

• 공원묘지 알선 • 묘지이상 • 식물및 조경 • 풍수지리
• 산악인부 • 여지일손 • 꽃상여 • 화환 • 도시락등

전국(대표) 1566-4428

홈페이지 : khsangjo.com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정무수석 한기총 내방



정정길 신임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이 6월 26일 오후 3시 30분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방문해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와

환담했다.

엄 목사가 “어려운 시기에 큰 일을 맡으셨다”고 인사하자,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미국 최고 문제는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고자 재협상 수준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며 “더 이상 미룬다면 국가 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고시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엄 목사는 “촛불시위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과 폭력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고 말하고, “법집서가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통령실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엄 목사는 “늘 기도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경제가 발전해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한기총 총무 최희범 목사와 사무총장 정연택 장로가 배석했다.

(재) ‘사랑과행복나눔’ 자원봉사단 창립예배



(재) ‘사랑과행복나눔’ 자원봉사단 창립예배가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렸다. 이날 창립예배에는 이영훈 담임목사의 사회, 김순배 장로회장의 기도, 조용기 원로목사의 설교, 김덕중 장로(자원봉사단 대표단장)의 후원금 전달, 엄신형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34절을 근거로 설교한 조용기 원로목사는 “남을 비평하기를 좋아하고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무관심주의자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되지 말고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돌보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고 말했다. (재) ‘사랑과행복나눔’은 아름다운 사회통합과 참다운 복지사회를 위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가까운 이웃, 소외된 계층부터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2월 9일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또한 충남 금산군 진산면의 이교재 씨 가정에 ‘아름다운집 1호’를 지어준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의 주택 개·보수사업, 생계비 지원 사업, 재난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호스피스 지원 사업,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을 펼쳐며 삶에 지쳐 희망이 좌절된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희망과 사랑의 전령사가 될 예정이다.

The Jesus Times

www.cpj.kr

풍성한교회 매주일 예배안내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 교회

표어: 지키자 / 목표: 교회 건축

새벽예배	매일새벽 5시 30분	기도회	금요일 9시
주일 낮	오전 11시	교회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학생회	주일 오후 12시 30분
수요일 밤	저녁 7시 30분	청년회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절)

담임: 장사명 목사

반주: 장선이선생

교회 주소: 339-810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3리 664-17

교회 전화: (041) 862-1438 팩스 (041) 862-1437 H.P 018-426-1438

미래목회포럼 5주년 축하 감사예배 드려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미래목회포럼(공동대표 이성희, 신화석 목사)출범 5주년 축하 감사예배가 지난 6월 2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오정호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김인환 목사의 기도, 김자연 목사의 설교, 신화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자연 목사는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제하의 설교에서 “오늘날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의 소통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목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진 축하기념 행사는 정성진 목사의 사회로 내빈소개, 케익커팅에 이어 신경하감도(기독교대한 감리회 감독회장), 박종구 목사(월간 목회발행인의 축사)와 CBS 이정식 사장의 동영상 메시지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광야의 축하 공연순으로 진행됐다.

필리핀 아이타 원주민 3,000여명 영성대축제 성황

지역 국회의원참석 병원 유치원 학교 정부지원약속

한빛교회 필리핀 잠발레스에 기념교회 세운다



1991년 6월 14일, 거대한 폭발과 함께 필리핀 피나투보산은 지옥으로 변했다.

6백여년의 휴면 끝에 활동을 재개한 화산은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맹렬한 폭발을 일으켰고 화산재는 하늘로 30km까지 치솟았고 중국과 한국에까지 화산재가 날아들 만치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피나투보를 자기들의 신으로 믿고 살아왔던 아이타 원주민들은 이날 사고로 사망자 1백70여명과 이재민 11만명을 만들어 냈다. 지금도 깊은 산속 골짜기에 들어가면 화산으로 굳어진 그들의 시신을 볼 수 있을만치 그때의 참혹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스페인에 400년을 통치 받으면서도 유독 스페인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오히려 필리핀의 순수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 아이타 부족이다. 스페인의 통치 후 모계사회로 전환된 필리핀이지만 아직도 부계사회로 전통을 이어가는 유일한 한 곳이 아이타 부족이다.

이들은 필리핀 정부로부터도 인구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민족으로 철저히 외면당한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



은 이들을 위한 구원계획을 선포했고 17년전 피나투보화산폭발이후 미국과 한국선교사들의 행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피나투보화산폭발 17주년을 맞이하여 필리핀 잠발레스지역 36개교회가 연합하여 한국에서 김성관목사를 강사로 초청 영성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영성대축제에는 아이타 원주민 약 3,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버스를 6시간 이상 타고 온 교회도 있었고 지난 주 장미로 교회가 붐빈던 것을 뒤로하고 참가하는 등 이번성회에 36개교회가 참여 하여 당초 예상 31개교회 2,000여명에서 36교회 약 3,000여명으로 참여하는 등 이번 영성대축제를 성황리 마치게 됐다. 그동안 잠발레스지역에서 영성대축제가 피나투보화산에서 6월 성회가 매년 있었지만 이번성회처럼 많은 인원이 관심 갖기는 처음 있는 일로 이번성회에 지역 국회의원 이 참여하는 등 관심도가 높은 성회였다.

이날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치루어졌다. 오전은 하나님께 경배하

는 시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초청된 김성관목사가 설교를 했다. 오후행사는 김명식집사의 콘서트 형식으로 준비된 찬양사역이 1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36개교회 회장인 제리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선물추진으로 진행됐다. 행사 막바지에 이르러 각 교회 어린이중 부모가 없는 아이타 어린이들을 100명을 선별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김성관목사는 이번성회를 마치고 기념교회를 건축해 주기로 약속했다.

영성축제에 강사로 선 김성관목사는 필리핀과 중국, 러시아등 40여개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번 영성집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두차례 말씀을 증거했다. 1차 설교에서는 김목사는 아이타를 위로 하는 메시지와 함께 그들에게 내일이 있음을 알리는 희망찬 메시지를 통해 설교도중 박수세례를 받는 등 큰 은혜를 나누었다. 2차 설교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병든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기 위한 메시지를 증거했다.

(7면에계속)
특역 조감암선교사 발린타이 목사 동행취재와 사진 대한기독신문

주일예배안내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심장로교회

금년표어 /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전진하는 교회.
기 도 / 1.교회부흥 2.성령충만 3.말씀충만 4.사랑충만 5.은혜충만

주일 낮: 오전 11시
주일오후: 오후 2시
수요기도: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 새벽 5시 30분
목요찬양: 오후 8시 30분
유·초등부: (토)오후 4시 30분
대학·청년부: (토)오후 6시

원로목사: 전영춘

담임목사: 전봉화

반주: 김민정

143-150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6번지

(02) 463-0288

제53회 황해도 교직자 총회



“주여! 우리에게 평화의 통일을 주옵소서” 해방 63주년, 6.25 58주년 기념 제53회 전국 황해도 교직자 총회가 6월 12일 오전 11시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열려 신임 회장 장영춘 목사(뉴욕 퀸즈중앙교회)를 추대하고 마쳤다.

황해도 교직자회는 황해도 출신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2세들의 모임으로 현 5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자유민주

주의 체제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 고향에 돌아 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단체이다.

이번 제53회 회장으로 추대된 장영춘 목사(뉴욕 퀸즈중앙교회)는 총회신학교 및 신대원 졸업, Central Theological Seminary(Th.M.), Faith Theological Seminary(D.Min.),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Ph.D.), 예장합동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 회장, 미주한인

예장 총회장, 동부개척 장로회신학교 학장, 미주기독교 북방선교회 이사장, 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 발행인, 미국 뉴욕퀸즈장로교회를 개척 시무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살아있는 나침반, 아가페와 필레오의 대화, 예수님의 눈물, 평화의 이상, 데오빌로여, 창조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등이 있다.

뉴욕퀸즈장로교회는 73.9.18 7 Franklin St. Brooklyn, NY 한교우의 아파트에서 4명의 성인과 3명의 아동이 장영춘 목사와 함께 가정예배형식으로 예배를 드린 후 1014 예배장소를 69-56 43rd Ave Woodside, NY 가정집으로 옮겨 약40명의 교인이 모이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교회창립의 구애를 모색한 다음 129 교회 명칭을 퀸즈장로교회라 이름하고 계속 부흥하여 수 천 명이 모이는 미국 전역에 한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됐다.

이날 예배는 부회장 이웅삼 목사의 사회로 박지훈 목사(증경회장)가 기도, 유호림 목사(서기)가 성경봉독, 회장 유원근 목사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회계 윤원선 목사가 헌금기도, 김만규 교수, 주순영 선교사가 특송을 했으며, 이봉재, 한승설, 이종규 조윤모 목사가 특별기도 순서를 맡았고, 총무 박종식 목사가 광고, 증경회장 유원근 목사가 축도를 했다.

이어 진행된 2부 회무처리는 회장 유원근 목사의 사회로 오영호 목사(증경회장)가 기도를 하고 서기 유호림 목사가 회원점명 후 회장 유원근 목사가 개회선언을 했고, 이어 증경회장단에서 신임 회장과 임원을 추천했고, 본회에서 추진하여 장영춘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친구 임원교체, 신임회장 장영춘 목사가 인사말을 했다.

장영춘 목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하고, 회장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여러 사항상 감당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 자리를 맡긴 것은 식사 값을 내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음식 값은 책임지고 내겠다며 피력했고 회원들이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됐다.

제주도 교단협, 이단대책 연합집회 계획

7·8월중 전문 강사 초청...제주시·서귀포지역 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회장 우종하 목사) 임원회가 지난 17일 이단사이비 문제 대책을 위한 모임을 갖고 교단협의회 차원의 이단대책 관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임원들은 최근 ‘선전지’ 등의 활동에 제주교회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제주선교2세기를 출발하는 제주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위해서는 연합집회를 통해 다 시금 경각심을 높여야 할 책임이므로 교단협의회에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장 우종하 목사는 “제주의 여러

교회와 교단에서 이단대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제주교회와 교단을 대표하는 도 교단협의회가 이에 대한 공동대응의 구심점이 돼 달라는 주문과 함께 이단대책은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이번 연합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교단협의회는 이 이단대책 연합집회를 임원회가 주관하기로 하고 올 여름이 가지전에 개최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리고 이 집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1회씩 2회에 걸쳐 열릴 계획이다.

(제주기독신문)

교회 후임자를 찾습니다

충남 연기군 남면 (이전관계로)

조건 :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3층 사택(조립식)) 800만원
2층 건평 35평 사무실 약2~3평 시설됨

문의사항: 02)741-0031, 011-468-6574 성순희님

제5회 인천지역 6.25 상기 구국 기도회

교회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때...

인천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인기총, 총회장 이규학 감독)가 주최하고, 인천기독교총연합회(이하 인기총)가 주관한 제 5회 인천지역 6.25 상기 구국기도회가 22일(일) 오후 7시 산돌교회(김영준 목사)에서 열려 한반도 평화통일과 안보, 인천복음화, 경제회복 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준비위원장 이종남 장로(산돌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회예배는 최영 장로(부회장의 ‘사무엘상 7:5-12’ 성경봉독에 이어 이규학 감독이 “미스비의 기도운동과 부흥”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계속해서 김성수 장로(인기총회)의 헌금기도, 강성호 장로(총무)의 광고, 김영준 목사(산돌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장자욱 목사(인기총 공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는 6.25 상기 관련 영화상영이 있었고, 박경복 장로(인기총장로회)의 개회사, 인천장로성가단의 특송 후에 이필섭 장로(전, 함의장, 우측 사진)를 강사로 요점정세와 이에따른 기독교인의 역할에 대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 시간에는 박용호 목사(부성교회)와 민돈기 장로(인천교회), 최조길 장로(내리교

회), 윤석호 목사(동춘교회)가 회개와 영적 각성, 한반도 평화통일과 안보, 각 교단 발전과 인천복음화, 경제회복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각각 대표기도를 인도했다. 전 참석자들은 애국가와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총회장 이규학 감독은 “20년 전만 해도 교회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구국기도였고, 전국 곳곳에 세워진 기도원의 이름이나 기도제목들이 모두 구국기도였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경제적 상승과 교회의 세속화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보다 세계선교라는 이름아래, 민족의 아픔과 통일의 과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다가 통일이 유익한지를 논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점차 경직되어 가는 최근의 남북관계,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 집회를 보면서 교회마저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등 총체적 난국의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규학 총회장은 바로 이때가 교회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때라고 말했다. 재를 무릎쓰고 배움을 입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평화통일을 위



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 이 사회의 구조적인 갈등에 교회가 대응하지 못한 죄, 교회가 연합하지 못한 죄, 진정으로 내 백성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회회사를 통해 역설했다. 인기총장로회 총회장 박경복 장로는 개회사에서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에도 잊혀져서는 안 되고, 잘 못 이해되어서도 안 될일이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면서, 다시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서로라도 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전답이 필요할”을 강조했다.

안산시 성시화를 위한 기도회 열려

기독교 지도자들 교회의 사회 영향력 길러 변화 요구

안산시 성시화를 위한 지도자 기도회가 지난달 27일 안산동산교회(담임 목사 김인중)에서 성시화운동본부 임원과 안산시 기독교계 지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철영 목사(성시화운동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김철영 목사는 “가장 짧은 도시,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도시 안산에서 성시화운동이 시작될 때 하심을 감사 드리고, 교회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운동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어 “성시화운동은 전복운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가 복음전도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복음주의대회에서 복음주의가 교회는 잘 하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없다

는 데 문제의식을 가졌다. 김 목사는 “도시단위로 건전한 사회행동을 해야 한다. 전도를 하더라도 교회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가 단결해서 사회행동을 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용태 성시화운동 대표본부장은 “퍼센트의 염분만 있어도 바다는 짭지 않는데, 우리 나라에 18.3퍼센트의 기독교인이 있는 데도 사회에 범죄와 부패가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전 장로는 “성시화운동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범죄 없는 사랑의 도시, 복음과 인권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안산시청과 안산시 성시화를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시국 안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으며, 이상철 목사(안산 상복수 명문교회)가 대표로 기도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준근 목사(성시화운동 총재), 전용태 장로(성시화운동 대표본부장),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김인중 목사, 김학중 목사(꿈의 교회), 이상철 목사(안산 상복수 명문교회) 김성식 전 시의원(명림교회), 정덕훈 목사(영광감리교회), 강기태 시의원(동산교회), 정재수 법무사, 김영길 목사(안산신복음교회), 김광희 목사(기쁨의 동산교회), 이정부 장로(한국출리클럽 사무총장, 권오용 변호사(인천출리클럽 회장), 최호자 권사(성시화운동 민들레정보기도장), 손평업 목사(변호사, 남양주 초원교회), 김정숙 목사(남양주 초원교회), 정정모 장로, 하옥수 권사, 박홍준 장로(재단법인 성시화운동 이사), 이희영 권사, 김종식 목사(성시화운동 총재 비서실장), 김철영 목사(성시화운동 정책실장), 김봉일 재단법인 성시화운동 총무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마누엘 성교교회

현 병 우 목사

주일에배: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일배: 오후 7시

금요일야: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선교교회
부천대학
상동초등학교

공동산 아파트
시랑마을 아파트

송내역
북사골사거리
북사골문화센터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권세능 목사

성도교회

구분	시간	구분	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저녁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오후 3:30
금요철야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오 저녁 8:00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그린빌아파트 102동 706호

☎. 031)656-5830

정상回期한 한국찬송가공회

법인설립, 재정투명성 확보 가능 일부에선 예상합동 견제하기 위한 ‘작업’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 황승기 목사)가 교계의 열원인 재단법인설립을 단행했다. 본회는 작년 11월 충청남도 도청에 법인신청을 하여 지난 5월 법인등기가 나왔고, 6월30일 재단설립 총회를 개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법인설립을 공포했다. 공동이사장으로는 통합과 합동의 증경총회장인 이광선 목사와 황승기 목사가, 찬송가공회 위원들이 이사로 등록했다.

찬송가 공회는 지난 1997년과 2000년 등 총 4차례나 걸쳐 법인설립을 추진한 바 있었지만 일부 교단을 반발로 법인설립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고발로 국제청에 8억 5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번 찬송가 공회의 법인설립으로 교계는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먼저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는 측면에서 찬송가 공회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불어다닌 ‘임의단체’라는 딱지를 뗄 수 있다는 점과 정관 중심으로 찬송가 공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동안 각 교단마다의 법적으로 이사진마다 이견을 보여왔던 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법인화 작업이 예상합동교단을 견제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 찬송가 공회는 26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지만 위원을 파송하고 있는 교단은 14개 교단에 불과하다. 이중 직무이사를 포함하면 예상합동교단이 5석의 위원을 차지하고 있다.(통합-2석, 기감-2석, 나머지 한석씩) 때문에 통합측을 필두로 기존 합동측의 견제하기

서울지역 제8회 교회정보화 및 영상음악 세미나 열려



한국교회 정보화와 IT인프라 확장을 위한 교회정보화와 효과적인 목회자를 위한 영상음악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한기재 목사)는 6월 30일(월) 중앙성결교회에서 <제8회 교회정보화 및 영상음악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이동현 목사(한기총 교회정보기술대학 학장)가 ‘인터넷 보안, 교회는 안전지대인가?’를, 전병철 대표(시음행)가 ‘교회영상 음악장비의 이해와 활용’을, 조성실 대표(영상네트워크)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영상컨텐츠 제작과 활용’을,

문인수 목사(목회와신학)가 ‘영상설교 제작을 위한 파워포인트 설계 준비법’을, 김상국 대표(디지로그)가 ‘디지털의 이해와 활용’을, 정철우 목사(기성총회)가 ‘교회컨텐츠 자산관리와 활용’을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다.

한기총 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부산 고신대학교 영도캠퍼스에서 제7회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세를 열어 IT기기와 솔루션 전시 및 사용설명회 및 활용법 등을 한국교회에 제공한 바 있다. 또 7월 14일에는 수원명성교회(유관식 목사 시무)에서 제9회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2008 여름성경학교’ 준비...교사강습회 ‘한창’

- 고신▶ ‘세계를 품는 어린이’
- 기성▶ ‘예수님 사랑 나누는 성결교회’
- 기감▶ ‘예수님 손잡고 HAPPY ...’
- 기장▶ ‘나는 달라졌어요-예수님 말씀...’
- 합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 통합▶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 부흥’

선교2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꿈꾸고 있는 제주교회가 2008년 여름성경학교의 시작을 앞두고 선교2세기 주역이 될 교회학교 어린이의 양육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19일 통합제주노회 영·유아·유치부 교사강습회를 시작으로 23~24일 기감제주지방, 26~27일 통합제주노회 아동부 교사강습회가 열리며 이어 6월28~29일 기장 제주노회, 30일~7월1일 기성 제주직할지방회, 30일~7월2일 고신제주노회 교사강습회가 각각 열린다.

2008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세계를 품는 어린이’(고신), 예수님

손잡고 HAPPY TOGETHER’(기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결교회’(기성), ‘나는 달라졌어요!’(예수님 말씀-생명의 말씀’(기장),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 부흥’(통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합동)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 즉 가정과 교회, 사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다음세대의 부흥과 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고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묻어나고 있다. <제주기독신문>

교단별 ‘2008여름성경학교’ 주된 교육내용

▲**예장고신**=선교사회의 만남을 통해 선교지 정보 제공과 선교를 위한 관심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선교역사 사적지 탐방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선교지 경험과 함께 선교훈련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이웃으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을 품는 소인도 교육한다.

▲**기성**=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 실천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의 성장 △사랑 실천 운동을 통한 대사회 기독교 영향력 발휘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기감**=이름다운 공동체 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가정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침을 받아 소금과 빛이 되어 더불어 사는 ‘이웃’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기장**=물질만능주의 판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폭우와, 한파 등으로 생태계가 교란되는 상황에 인간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개체생명과 공동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성경의 생명관을 바

탕으로 각 영역에 일맞은 생명교육을 전개한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모습을 제시하고 가정의 생명친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전초기대를 강조하게 된다.

▲**예장통합**=오는 2012년 교단 총회 창립 100주년을 맞는 예정통합은 ‘새롭게 다가오는 또 다른 100년’에서도 과거의 자랑스런 성과 부흥역사를 계속적으로 세갈 수 있는가?’란 질문과 이에 대한 교육적 응답으로 다음 세대의 성장과 부흥을 바로 교회학교의 부흥에 있음을 강조하게 된다.

△이동수 김소 △주일학교 운영 시간의 축소 △선양의 대안기에 대한 위기 △대교회적인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등은 오늘날 교회학교의 위기 요인들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처와 다음 세대의 부흥과 새로운 진전을 위한 영적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장합동**=오늘날 가정들이 자녀교육, 결혼가정, 이혼, 가정 폭력 문제 등의 요인으로 격심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에 대한 교육적 관점과 관심을 이끌어 낸다. 이를 위해 △가정의 기원 △오늘날 가정의 현실 갈등, 회피, 원망, 불평 등 다양한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시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11회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삼척시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박종석)는 6월 21일(토) 오전 9시부터 '노곡면 노곡분교 운동장'에서 김대수 삼척시장과 각 기관·단체장 및 의

용소방대원, 대원가족 등 1,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1회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해 참가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평소 지역재난 활동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로 지역별로 열심히 활동 중인 삼척시 15개 의용소방대가 대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원 상호간 친목 및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다. 주요 경기 종목은 배구, 피구, 응급처치경연대회, 호스메고 이어달리기, 노래자랑 등으로 이어지는 행사에는 김대수 삼척시장과 최연희 국회의원 및 삼척시의회의원, 김국현 삼척소방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들도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동안 지역방재 중추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치하한다.



복음에 의한 민족통일과 세계 복음화에 뜻을 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인 모퉁이돌선교회(대표 이사장 목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주문도훈원원에서 ‘이제는 중국으로 세계선교를...’이라는 주제로 37회 선교학교를 개최했다.

이날 선교학교에서는 올림픽 이후 중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사역을 나누고 실제적인 선교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지금까지 선교대상국으로 생각해왔던 중국교회가 공산화의 가속한 궤박 중에도 놀랍게 성장을 통해 내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교회가 올림픽을 기점으로 선교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한국교회가 이제는 중국선교를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준비할 시기에 맞춰 준비된 선교학교이다.

이번 강사진은 이진호 목사, 이사 목사, 가브리엘선교사,의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사역 선교사가 맡았다.

개인정보유출 무방비 대책은 없는가?

대책없이 졸졸 새나가는 개인정보유출 무대책이 대책인가?



교회홈페이지 담당자 관리소홀 인한 유출 우려 담임 목회자 정보유출에 대한 인식 제고 절실. 최근 온라인 마켓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사회를 당황스럽게 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관련 사이트에 방문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곤 한다.

최근 크리스찬연합신문에 의하면 '대부분 온라인마켓에는 서버 보안담당자 등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과 달리 문제의 심각성은 예상보다 컸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 대형 교회든 중소형교회든 보안에 중요성을 있어 버리면 언제 어디서나 교회 성도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교회주요문서까지 해킹 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컴퓨터 운영과 관리시스템은 안전한가를 점검을 한다고 밝

혔다.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물,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집전화, 핸드폰, 이메일, 직번, 소속기관 등의 정보를 통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이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요소 등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교회홈페이지와 교적관리시스템, 재정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 동시에 연동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관리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운용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어 외부로 교회의 정보와 자료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새고있는 교회 개인정보와 기밀자료들, 교회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오픈된 개인정보들을 보면 담임목사의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 교역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역들, 성도들의 소속교구와 이름, 여기저기 올라가

있는 개인정보들을 쉽게 홈페이지에서 접할 수 있다.

특히 교회 게시판에서는 한 주간간의 목회자 및 교인동정을 알 수 있는데 그들 중에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단기선교를 간다는 정보가 있다면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홈피 관리자 아이디의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유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인 인터넷담당, 전산담당 담당사역을 장로나 안수집사, 또는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허점이 있다. 장로, 안수집사 등은 직점적으로 전산업무를 하기보다는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젊은 사역자들에게 관리자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어 관리하는 일들이 잦다. 더욱이 이런 젊은 사역자들은 자신만이 그 아이디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원들 모두에게 공개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회내 개인정보와 기밀문서 보호

최근에는 교회홈페이지와 교적관리시스템, 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교회가 예전보다 늘고 있다. 관리성과 신속성 등의 이유로 교회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에 관리업체의 실수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믿을만하고 신뢰성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세하거나 작은 규모의 웹호스팅에서는 보안과 관련하여 허술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교적관리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을 로컬컴퓨터에서 운용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어찌보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 기업에서 운용할 경우에는 그 책임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 있기에 보안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만 교회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바이러스 방화벽 설치

컴퓨터를 다룬지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사라지게 하는 바이러스, 불법접속자로부터 컴퓨터를 지키기 위한 방화벽설치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다. 그러나 이러

한 기본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가 다문화되어 교회의 주요자료나 정보들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개인이나 교회에서는 최소한 개인용 방화벽 또는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백신업데이트 등 통해 보안의 허점 막아야

간혹 컴퓨터를 구입하여 2~3년이 지나도 윈도우 업데이트가 무엇인지 몰라 구입초기 상태로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러한 목회자들은 언제 자신의 자료와 정보가 해킹당하거나 바이러스로 인해 없어질지 모른다.

윈도우 업데이트는 프로그램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윈도우의 문제점이나 패치를 올려놓아 사용자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백신업데이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다운받아야지 최신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탈피할 수 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들

최근 전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말씀사랑운동

(지식 정보 시대에 획기적인 부흥전략 집회)

말씀사랑운동본부(본부장 김동기 목사는 최근 전국교회, 기도원, 수양관, 학교, 학원, 군부대에서 말씀사랑운동에 전념하며 열정과 헌신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말씀집중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의 큰 은혜를 끼치며 헌신, 순종,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학생들에게는 말씀을 통한 집중훈련이기에 놀라운 집중력과 독서능력,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끼치며, 직장인들에게는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불신자들에게는 집중훈련에 참여케 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에 큰 활력을 주고 있다.

말씀사랑운동을 하게 된 목적은 말씀의 기갈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며 많이 읽게 하며, 불신자들에게는 이 훈련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 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화시대에 홀수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량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훈련을 통하여 향상시키며, 성경말씀을 통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생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전인 교육보다도 세상의 성직위주의 교육으로 왔기에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해야 한다.

성경 안에는 능력을 갖게 하는 무궁한 보물들이 있다.

참 능력은 성경말씀에서 나온다. 잠언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고 하였다.

그렇다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영성을 갖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

세상의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있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최고의 교과서이다.

이 말씀사랑운동이 학교, 직장, 사회, 전국교회에 확산되어 질 때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 복음화 될 것이다. 살기 좋은 행복한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조직으로는

고문: 백운형 목사 장영철 목사 정기남 목사

대표총재: 이태희 목사

상임 대표회장: 최승준 목사

대표회장: 권세호 목사

본부장: 김동기 목사

지식 정보 시대의 획기적인 전도 전략 특별 집회전국부흥회, 수련회, 제직 세미나, 목회자세미나, 종교등학교, 신학교, 대학교 특강신청 011-9119-7661, 041-904-0675 전국지부 및 대 감사 모임

The Jesus Times
www.cpj.kr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성으로 3차원을 변화 시켜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 핵심인 ‘4차원의 영성 지도자 포럼’이 CCMM 우봉홀에서 20일 열려 세계 교회를 향한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 이날 포럼 발기인단을 포함한 400여명의 교계 유명 목회자와 기업인들은 사명선언문을 외치며 포럼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결의했다. 4차원 영성은 하나님의 생각, 믿음, 꿈, 말을 통해 우리가 속한 3차원의 현실을 변혁시켜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차원 영성의 창시자인 조용기 목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과 긍정으로 이를 가늠케 한다”고 말한다.

이날 포럼에 최성규 목사(순복음인전교회)는 축사를 통해 “4차원 영성지도자 포럼에 정치, 문화, 언론, 예술 포럼 등이 더해지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교회가 교회답을 넘어 세상으로 가는 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신영환 회장(CEO포럼 고문)은 “3차원세계를 흔들며 영향을 미치는 4차원의 영적인 원리를 조용기 목사님이 알아냈다”며 “이 4차원 영성을 책으로 출판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 포럼으로 만든 것을 감사 드린다”는 축사를 전했다.

를 전했다.

설교를 맡은 조용기 목사는 “오늘 우리가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며 “성경말씀을 통해 4차원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조용기 목사는 “나는 삶속에 2가지 꿈이 있었다”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조 목사는 “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꿈에 취해 살았다”며 “이 꿈을 가지고 사역해 온 결과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밝혔다.

설교에 이어 임명장을 수여했다. 목회자 포럼 대표회장으로 윤석전 목사(연세중앙교회)와 CEO포럼 대표회장으로 박상철 회장(주신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날 윤목사는 해의에 출국중이어서 임종달목사(공동회장 전주순복음교회)가 대신 받았다. 이날 설교에 앞서 엄신형 목사(한기총 대 표회장)는 격려사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 첫 인물이 된다는 것은 피눈물 나는 희생이 없으면 안된다”며 “조 목사님은 하나님이 시대에 사용하시어 이 일이 마칠

때까지 사역 하실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길 총장(한동대, CEO포럼 고문)은 “내가 미국에서 저널리스트(NASA)에 근무할 때 조 목사의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며 “카리스트 장조과학회에도 첫 초청인이! 조 목사님이었다”며 조 목사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과학의 세계는 3차원인데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며 “사차원 영성에 대한 교육이 없는데 이 부분을 자신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1부 창립예배와 2부 오찬 후 CEO와 목회자 포럼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4차원의 영성 지도자 포럼의 모토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사랑은 포럼의 기본적인 비전이다.

각 구성은 LOVE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비전으로 Leadership, Outreach, Value, Evangelism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통해 4차원의 영성이 이 시대 세계 사회에 실현되어야 하는 영적 원리로 전파하고자 창립했다.

(국민일보 제공)

인터넷 여론 믿을 수 있나



최근에 일어난 촛불시위는 전자정보의 위력을 여지없이 발휘하였다. 광고 한번 내지 않고 수천, 수만 명을 한 자리에 모은 것은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정보 전달 능력 덕이다. 시위 참가자의 절대다수가 인터넷 세대란 사실이 이것을 증명한다.

한·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시위는 큰 효과를 거두었다. 쇠고기 추가 협상을 이끌어내고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시켰으며, 그렇게 당당하던 대통령을 비굴할 정도로 사과하게 했다.

원로도, 언론도, 심지어 국회조차 그 정도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획기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고 시민사회의 모범 사례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성과를 보고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원도 하지 않고 촛불시위 풍무리를 따라다니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날 만도 하다.

시위대는 돈 한푼 받지 않고도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큰 액수의 세비를 받으면서도 촛불 앞에서 ‘결불이나 쪼고’ 있으니 국회가 과연 꼭 필요한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가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는 더 클 것 같아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9면에계속)

(코랄데오닷컴)

SBS 다큐, ‘예수 신인가 인간인가’ 방송 강행

서울방송, 민간방송인가 기독교 안티 방송인가



SBS는 지난 27일 기독교계의 대표단이 방문하여, ‘우리 사회에서 방송과 종교간에 교유의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이 서로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09월에 서울방송이 준비중인 다큐 예수 신인가 인간인가라는 프로그램은 그러한 상호간에 신뢰를 허를 수 있다’는 정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9일에 방영을 강행하였다. 4부로 예정된 프로그램 중 제1부에 해당하는 이날의 방송 내용은, 기독교계에서 우려했던 대로, 예수를 고대 여러 중근동 국가에서 떠돌던 신화와 동일시하여, 성경의 여러 내용들도 유대를

배경으로 신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즉 동정녀 탄생, 부활, 이적, 영성 등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고대 신화에서 흡수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가진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등장한 인물들, 현대에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상충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기독교 안티적이고 신비주의 학자인 영국의 티모시 프리크를 등장시키고 있다. 그는 예수에 관한 것이 고대 신화를 재구성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의 저자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통 기독교 입장을 피력할 신학자는 철저히 배제시키므로, 방송의 기획의 도덕 방향을 시청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SBS는 지난 27일 한국교회연론회가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여 보낸 대표단의 정중한 입장을 듣고서도, 언론 플레이를 통해, ‘한국 기독교의 신앙 문제를 건드린 것이 아니고 2천년 전 예수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것(대표단)이 한국 기독교 신도들의 순수하고도 절실한 신앙 전체를 대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운운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종교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달 27일 한국교회연론회 대표단이 SBS를 방문하여 실무 국장과 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는 담당 PD의 기획을 우려하여 결재하지 않았다’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이 방송 프로그램은 기독교를 자극하거나 기본 교리에 반하는 위험성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서울방송은 이번 다큐 물(物)이 한국 기독교를 직접 겨냥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를 정통기독교의 신학적

입장을 철저히 제외하고, 편향된 인문학적, 영지주의에 근거한 해석으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교회의 현상적인 문제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교회연론회 대표단이 SBS를 방문하여 전한 내용도, 예수를 신화적인 존재로 몰아가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세월동안 많은 정치적 박해와 이단의 도전을 받아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굳건히 서 왔다. 이번엔 SBS가 방송한 것은 스페셜(Special)이 아니라 스쿼트(Squirt-미구 뿜어 대는)에 지나지 않고, 안티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 건 하려는 아마추어리즘으로, 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획책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공중파 상업방송임상에서, ‘시정를 지상주의’ 아발로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지는 몰라도, 시정를 높이기 위하여 세계 종교인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방송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만자본주의의 저급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보편적 교회로써, SBS의 급변 방송물과 같은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위치를 굳건히 해 왔음을 다시 확인하며, 한국교회는 SBS의 방송태도를 불쾌히 여기고,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교회

www.haeksim.net



이 선 목사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장년부	새벽 5:00	대예배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1부 주일 오전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실		2부 주일 오전 9:00	
	주일 오후 3:00			3부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1 교육관	철야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 교육관		수요일 저녁 7:00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금요일 오후 8:00	

☎. 02)430-9107, Fax 02)401-7954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효성아파트 205동 앞)

건·강·한 교·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 041)634-0441(사무실),
041)633-9146(목양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수료식 47명 사역자 배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복음사역자를 양성하는 한기총 통일선교대학이 수료예배를 갖고 일반과정 41명과 지도자특별과정 6명 등 4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임신형 목사) 통일선교대학(이사장 양병희 목사, 학장 양영식 박사)은 6월 30일(월) 저녁 기독교교회

2층 강당에서 <일반 19기 및 지도자특별과정 4기 종강 및 수료예배>를 가졌다.

임현만 박사(교학처장)의 사회로 드려진 이날 예배는 김요셉 목사(남북교회협력위원장)가 ‘통일선교의 일꾼’(마 5:13-16)을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최희범 목사(한기총 총무)와 박안신 박사(통일선교정책연구원장)가 축사와 격려사를 했다.

1998년 개교 이래 1천 4백명 이상의 북한선교 전문 사역자를 양성한 바 있는 한기총 통일선교대학은 효과적인 북한선교를 위해 통일선교대학 LA캠퍼스와 휴스턴캠퍼스를 설립했으며 국내는 물론 미주지역 북한선교 및 통일사역자 훈련 최고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 전체 재학생의

30% 이상이 탈북민으로 구성되어 매 강의마다 남북한의 문화와 역사 및 언어의 차이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의 이질감이 극복되는 ‘통일의 장’이 되고 있다. 올해에도 정규 강의 외에 하나원 교육생 홀스데이, 국가안전보장시관 방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역자들을 훈련했다.

2006년도에 처음 개설한 ‘지도자특별과정’은 이론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북한선교의 현장실습 중심의 실제적 강의로 구성되었다. 4학기 2년 과정 수료자 중 전형을 통해 선발된 특별과정 수료생은 북한선교전문사역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크리스천뉴스 / cin 21c

이어령 교수 “문화로는 만족할 수 없는 갈망 있다” “세례를 받은 뒤 나를 욕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고백

“영혼이 굶주리면 교회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문화로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음을 잊지 말고, 그들을 품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사역에 임해 주세요.”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이어령(74) 이하여대 명예석좌교수가 ‘신앙과 문화의 차이’를 주제로 명강의를 펼쳤다. 30일 서울 신촌 연세대에서 열린 ‘미래 교회 콘퍼런스’ 주제강연에 서다. 그는 지난해 7월 세례를 받고 ‘지성인’에서 ‘영성인’으로 거듭났다.

“인간의 지성과 감성으로 이해가능한 문턱까지를 문화라고 한다면, 그 문지방을 넘어 지성과 감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관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석가능한 것을 종교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는 또 예배나 집회현장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찬양이나 영상 등 문화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감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의 촛불시위를 예로 들면서 “(촛불시위 현장에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파워는 그런 데서 오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문화적 차원이었다면 나는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강의의 초점은

물질과 사랑으로 옮겨갔다. 그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독교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면서 요즘 교회와 세상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기독교의 본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빵만드는 것을 사랑의 일부로 놓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듯이 의로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만 하면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이나 다들 어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세례를 받은 뒤 나를 욕하는 사람이 많았다”면서 자신의 신앙생활도 소개했다. “당신이 지성인이 라면서 기독교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국문화의 위대성을 얘기하던 사람이 서양 무당에게 무릎을 꿇다니 배신자다’라는 등등의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런 사람들



은 가슴속에서 사탄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 때문에 믿을 것 같으니 나를 욕하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이런 글들을 보고 충격받았지만, 이제는 기독교인이 하나 늘겠구나, 바울이 하나 나타났구나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까지 진행되었던 미래교회 콘퍼런스는 박준서 연세대 명예교수, 정석환 연세대 연신원장, 김희권 숭실대 교수, 김학중 꿈의교회 목사, 최일도 다일공동체 목사,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이성희 연동교회 목사, 박종화 경동교회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

(국민일보제공)

3면에서 계속

필리핀 아이타 원주민 3,000여명 영성대축제 성황



김목사는 “육신의 질병은 영혼이 병들어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이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위해선 병들어 있는 영혼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목사는 이어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선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병든 영혼이 치료된다”고 강조했다. 설교를 마친 후 회개기도를 이끌던 김섬란목사는 안수를 받기 위해 앞으로 밀려든 성도들에게 안수식을 시작 했고 하나님께서 김섬란목사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날 성회에서 김목사와 동행하여 김목사의 안수 후 뒤따라며 기도를 돕던 성도가 고질로 앓아오던 치질이 치료되는 등 간질 환자가 치료되고 디스크, 피부병이 치료되는 등 이루말 할 수 없는 많은 병자가 치료됐다. 김섬란목사의 신유집회 후 2부설교사부터 예배에 참여하여 김섬란목사의 설교를 들은 Amor.Delosa(국회의원/GOV.)는 신유

집회가 끝난직 후 30분간 간증을 겸하여 지역원주민을 위로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정작자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오늘 김섬란목사의 설교를 듣고 잘못된 삶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다”고 고백했다. 또한 앞으로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아이타원주민을 정부예산을 받아 학교와 유치원 병원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 잠발레스 북쪽지역 장마로 교회와 파손 된 곳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지어 줄수는 없지만 정부예산으로 교회복구는 할 수있다”고 말하고 “교회복구에 우선해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섬란목사는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표시로 N.I.V 성경책을 선물했다. 김명식 집사는 점심식사 후 1시간 가량 콘서트를 진행했다. 김명식 집사가 찬양을 하던 중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가 돌아간 성도가 팔작팔작 뛰다가 다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 신유집회의 여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성회를 마친 후 각 교회로 돌아간 뒤에도 교회들끼리 모여 벌인 간증 시간을 통해 병든몸이 치료되는 간증이 계속보고되고 있다. 이날 성회는 지난 17년간 한국의 선교사들이 흘린 눈물과 땀의 결실을 보는 성회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아름다운성회였다. 평생 필리핀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산속에서 서민 살아왔

던 아이타들이 화산폭발17년이 지난 지금 목회자, 법률가, 선생, 의사 간호사등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배출되어 필리핀 사회곳곳에서 아이타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아이타 원주민들에게 교육을 받을수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성회전 원주민들이 성회에 참여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주기위해 직접 나무에서 따온 과일을 주는 아름다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케 했다. 김섬란목사는 이날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필리핀 잠발레스 이바 - 보플란지역에 한빛 기념교회를 건축하기로 했다.

이바 - 보플란지역은 성도가 60여명 되고 현재 원주민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으며 성도중 한사람이 땅을 기증하여 교회를 건축하기만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섬란목사는 “아이타원주민은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부모가 사냥을 가거나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변을 당하여 죽고 아이들이 산속에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교회에서 100여명 정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필리핀에 미래를 생각하여 기도하며 더 많은 아이타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힘을 모을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교회건축과 관련하여 김목사는 “그동안 필리핀과 중국, 러시아 40여개국을 선교하며 다니며 한빛 기념교회를 12개 건축하여 세워 놓았는데 이

번에 특별히 필리핀 아이타 부족의 건강한 영성을 위해 교회를 건축해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회에 참여한 이목화 권사는 “김섬란목사님을 10년전부터 알고 선교에 동역해오면서도 선교현장에 따라오긴 이번이 처음인데 김섬란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번엔 보고서 앞으로 목사님의 더 큰 사역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섬란목사는 “이 모든 것의 성공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입니다. 전이 시간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원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저는 그 뜻에 사용되어질 바란다”고 말했다. 필리핀 아이타 부족 선교에 16년째 헌신하고 있는 조강암선교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고 말하고 “이번엔 김섬란목사님이 오셔서 한국교회를 알려주셨고 아이타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셨다”고 말했다.

이번행사를 시작한 이광원목사(대한국독신문발행인)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일에 계획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피력했다.

36개교회 연합회장제 목사는 연합회를 대표해서 김섬란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발간기념사



출판을 했습니다.

이제 두 돌을 맞이한 금강뉴스가 창간 때의 초심을 잘 지켰는가 하는 점을 겸허하게 자성을 하는 한편 금강뉴스가 두 돌을 맞아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음은 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질책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간호부터 본지가 독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부터 금강뉴스는 정세 변화에 따라 날카로운 붓글로 시장을 질타하고 때로는 지역민과 함께 생활의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한편 따뜻한 세상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

금강의 시대를 맞이하며 2년 전 ‘금강뉴스’는 충청권 정론지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첫

근원이 멀면 흐름도 길다

과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거리에서 지역소식,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문화의 한마당에서는 그들의 열정을, 또 교육의 현장에서는 백년대계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학생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어디에서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금강뉴스의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귀중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으며 때로는 억눌리는 서민들의 아픔도 공감했습니다. 그것은 금강뉴스가 지역민들과 같이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금강뉴스가 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음은 아무런 조건없이 고귀한 글을 써주신 필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기에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올해는 그분들의 노고에 답하고자 소중하게 기고해주신 글을 모아 소박하

게 책을 엮었습니다.

이제 금강뉴스는 갈림길 제목인 ‘근원이 멀면 흐름도 길다(源遠流長)’에서 금강뉴스의 뜻을 밝혀주었듯이 “금강에 그 물줄기를 대고, 긴 흐름으로 열린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는 여러분의 바램을 결코 잊지 않고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충청권을 아우르는 정론지로서 한발짝 더 다가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어린 고견 속에 초심을 잃지 않는 정론지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금강뉴스 발행인 신 용 희

금강뉴스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외 직원 일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담임 정재규 목사

(우 153-837)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3-64번지

☎ 02)803-4549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담임목사 조 광 표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530-35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061)274-6461 / 학장실: 061)242-1617
자 택: 061)274-1808 / 핸드폰: 011-631-1977

1구좌 1만원 ‘후원 천사’를 모십니다

지저스타임즈와 인터넷방송
www.cpj.kr 운영을 위한
평생 1004 후원회원을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농협 계좌: 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

한기총, 제58주년 6.25 맞아 기념행사 개최

UN전몰장병 헌화, 보훈병원 위문, 6.25상기 특별기도회 열어



6.25전쟁 발발 제58주년과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UN군 전몰장병들에게 헌화하고 보훈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을 위문한다. 또 6.25상기 특별기도회를 개최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임직원 40여 명은 6월 19일(목) 부

산UN기념공원을 찾아 그곳에 안장된 UN군 전몰장병들에게 헌화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회장 정필도 목사)가 공동주최하고 한기총 국제위원회(위원장 피영민 목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엄신형 목사는 “세월은 과거의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지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목숨을 희생한 UN군 장병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비극이 한반도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1951년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전사자 묘지로 조성된 후 1955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UN에 영구 기증된 UN기념공원(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은 현재 11개국 2300여 명의 전몰장병들이 안장되어 있다.

6월 22일(주일) 저녁 7시에는 <6.25상기 58주년 한국교회 특별기도회>가 신일교회(담임 이광선 목사)에서 한기총 임직원과 각 교단·단체장 및 성도 등 약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다. 사회위원회(위원장 이성희 목사)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이광선 목사의 사회로 김자연 목사(명예회장)가 설교하며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6.25 참전 21개국과 한국군 참전 전사자들을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성장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등을 제목으로 특별기도가 진행된다. 이날 헌금은 6.25 전사자들을 위문하는데 쓰여지며, 현 시국과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가 발표된다.

6월 25일(수) 오전 10시에는 강동구 둔촌동 소재 보훈병원을 찾아 6.25전사자 및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한다. 이날 한기총은 임원중인 환자들을 위해 특별기도회 헌금 등으로 마련한 TV 20대와 냉장고 10대 및 양말과 속옷 각 350세트 등 약 1천5백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한다. 한기총은 매년 5월과 6월 국립경찰병원과 원호병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임원치료중인 경찰공무원과 국가유공자들을 격려해 왔다.

생활의 지혜



■ 건전지 오래 사용하기

식칼의 등이나 망치, 드라이버로 건전지의 앞면을 4-5차례 두드린 후 다시 사용해 보자. 그러면 건전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고기 먹고 채웠을 때

파인애플을 먹으면 금방 내려간다. 파인애플이 고기를 연하게 해주기 때문에 갈비나 불고기를 할 때에도 파인애플을 애용하면 된다.

■ 딸꾹질 멈추기

설량 한 스푼 분량을 입을 다물고 혀를 위턱에 대고 녹은 설량을 조금씩 삼킨다. 그대로 몇지 않으면 몇 번 반복하면 분명히 딸꾹질이 멈출 것이다.

■ 시든 꽃 활짝 피우기

마늘을 으갠 후 구구 마늘을 곱 정도의 물에 넣고 잘 흔들어서 화분에 부어주면 시들었던 꽃이 활짝 핀다.

하나님의 성회 통합총회 제1총회장 김상용 목사 취임 감사예배

하나님의 성회 통합총회 제1총회장 김상용 목사 취임감사예배가 6월 10일 오전 11시에 청주중앙순복음교회(김상용 목사)에서 2000여명의 성도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제1총회장으로 취임한 김상용 목사는·청주사범학교 졸업·한세대학교 졸업·명예신학박사·청주지역 기독교 연합회장 역임·순복음부흥사회의회장 역임·기독교 청주방송 운영 이사장 역임·순복음청주신학교 학장·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학발전 위원회장·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오! 은혜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사막에 꽃을 피워라, 세상의 빛, 샘 곁의 무성한 가지, 등의 저서가 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35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김상용 목사 외 7명의 성도들이 시작하여 한 걸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달려 온 결과 지금은 3만 여명의 성도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대형교회로 부흥했다.

김상용 목사는 하나님의 성회 통합 1총회장으로 취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단이 통합하는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 크고도 막중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앞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서은 총성이니라고전42)”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교단 그리고 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온몸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충성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

며, 앞으로 교단이 한국교회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교단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임종달 목사(통합교단 사무총장)의 사회로 권문집 목사(증경총회장)가 기도, 김봉준 목사(통합교단 총무)가 성경봉독, 연합성가대의 찬양에 이어 통합대표총회장 조종목 목사가 “이제 이후가 달라진다.”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진행된 2부 축하의 시간은 배진기 목사(증경총회장의 사회로 축하패 및 꽃다발 증정을 하고, 백민아바르셀로나 국립음악단 원가 축하를 하고 김성광 목사(증경총회장)가 축사를 했다.

김성광 목사는 새로운 시대에 총회장이 된 것을 축하하며, 이제와 이후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10,000여 명의 대지에 5,000여명이 한자리에서 예배 할 수 있는 대형교회를 세우고 총회에서 제1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잘되고, 건강하며 자녀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영 목사(청주시기독교연합회장)는 우연히 총회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된 것이다. 김상용 목사의 어머니의 기도로 된 것이라고 축하를 했으며, 이상철 장로는 통합에 수고가 많았다. 통합

으로 인해 교단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우리는 평신도로서 열심히 복을 전하는데 힘쓰겠다고 축하를 했고,

김주환 목사(강원도 기독교연합회장)는 교단의 대표총회장은 뒤에서 섬기고 제1총회장은 교단대표로 한기총, KNCC 등 교단의 얼굴이 되어 참석 할 것이며, 제2총회장은 교단 내 살림을 책임지며, 제3총회장은 해외 선교와 선교사들을 담당하여 열심히 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막중한 직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권면했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목사가 되어 총회 원 모두가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존경 받는 총회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주지방회 회원들과 함께) 또한 유재필 목사는 30년이 넘도록 순복음교회를 잘 섬김으로 쓰임 받게 됐는데 앞으로 더 크게 너 넓게 쓰시려고 총회장으로 세웠다. 김 목사가 평소애 자주 쓰는 말이 “잘 먹이면 좋은 사람 된다.”인데 그 말처럼 통합총회 모든 분들을 잘 먹이는 총회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 했다.

이어서 오세악 장로가 광고하고, 박종선 목사(증경총회장)가 축도하고 마쳤다.

■ 논 평 ■

1인시위 중이던 박찬성 목사에 대한 폭력사태에 대하여

6월 23일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박찬성 목사에게 가해진 폭력 사태에 크게 우려한다. 박찬성 목사는 본 연합회 회원 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총연합회 회장으로서 평화적인 1인시위 도 중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실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법률에 의해 보장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해 해방직후 혼란기에나 있을 법한 테러가 자행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악행이다.

당국은 이번 사태의 가해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차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과격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현 상황에서 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유익이 될 수 없음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칼럼 ■

촛불집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왕권통치 국가가 아니다. 또한 군부독재 하에서 뿔뿔히 대통령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선출되었기에 대통령께서도 현실을 직시하여 국민의 뜻을 깊이 새겨들어야 하며, 국민 모두는 대통령의 직무에 대하여 감시해야 할 책임도 있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은 건강하게 살기를 열망하여 품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하는 촛불집회가 2개월여에 걸쳐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듯하다.

이 집회에는 젊은 부모가 데리고 온 어린이들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시간 TV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측에서 먼저였는지, 집회 측에서 먼저였는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폭력적인 장면을 여러 번 보게 되니 이제 나는 뉴스시간에 TV를 끄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폭력적인 장면이 TV 화면에 비춰지게 될 때에 마음 편한하게 TV를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우리 온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협상을 다시 하라고 하는 집회이기는 하지만 너무 지루하고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한다. 양측에서 많은 부상자가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로12:2>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별된 삶, 즉,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며 주님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

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였다.

또한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율바른 판단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지구촌에서의 우리 국익에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았는가.

<마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리라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 우주는 광대하다.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무수한 천체 중 작은 별 하나에 불과한 이 작은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은 또한 작은 나라요. 그것도 반 토막으로 하리가 찢어진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촛불집회 장소에 나가서 노래 부르며 촛불을 흔들고 때로는 그들 그들의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에 가담하지 말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각자의 생애에 종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진다. 여·야 정치인들 중의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딤후2:1-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국민 모두가 평안하게,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각자가 노력해야겠다.

(사)한민족행복찾기국민운동본부 한국 노숙자 선교 연합회

본부장 전영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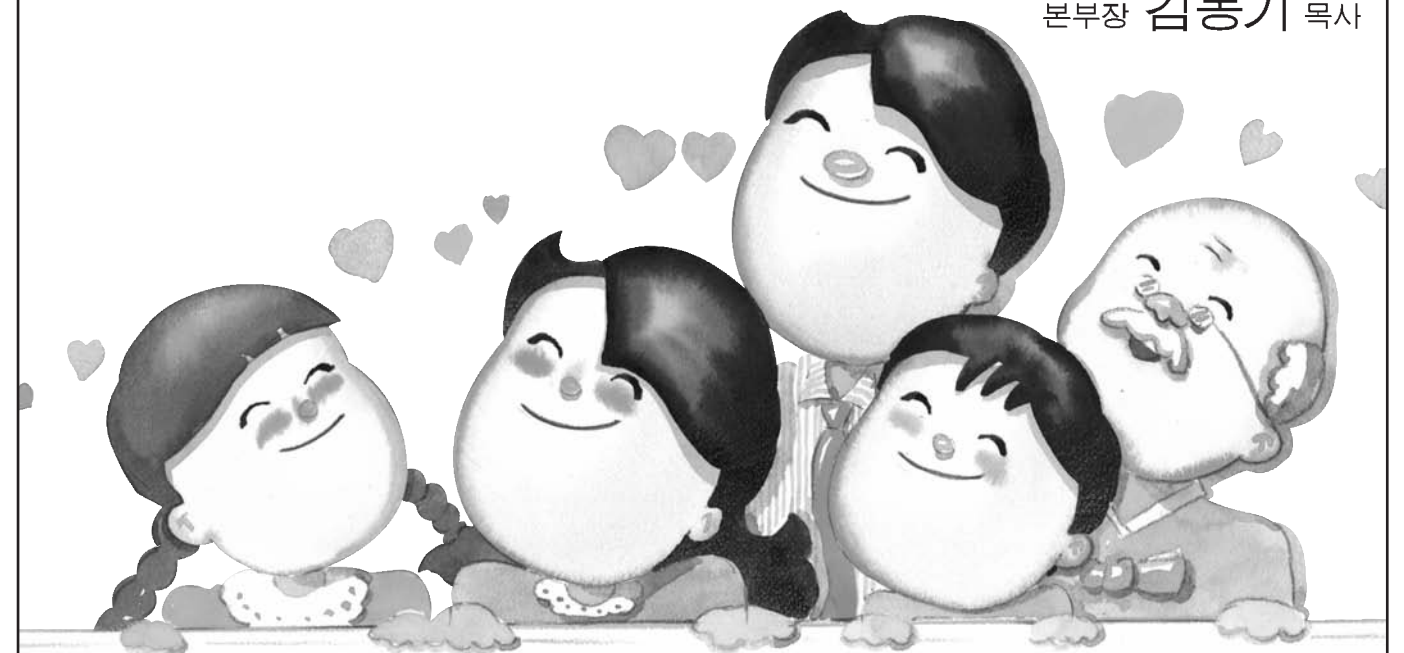
www.homelessness.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87 무악빌딩 1층
☎. 02)392-8825~7 Fax 02)363-5562

인재양성 및 세계복음화

말씀사랑운동본부

본부장 김동기 목사



충남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산 30-1
☎. 011-9119-7661, 041)904-0675

가정예배



권 세 능 목사
평택성도교회 담임
본지 상임이사

7월 14일 / ㄴ1:1-11 대한민국 을 위하여 찬송:371장

노혜미아는 직접 조국 건설에 헌신한 애국 선지자입니다.
본래 바사 수산궁 에서 높은 권세로 있었지만, 하나님 의 몇 사람이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다 녀와 사정을 전해 줍니다.
노혜미아는 비참한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사람에게 눈물이 있는데 누구나 자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노혜미아는 조국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이처럼 노혜미아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기도 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범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노혜미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아버의 집이 범죄를 행하였습니 다.
우리가 다같이 심히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 다.
우리는 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 습니다.
이 죄를 자복 함시다”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 리고 있습니까? 노혜미아는 자기 죄를 회개할 뿐더 러 민족의 대 제사장이 되어서 민족의 죄를 자복 하며 용서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현 시국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도 자들과 미움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국을 위하여 할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

7월 15일 / 창50:15-21 전하위복의 하나님 찬송:342장

하나님은 전하위복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고난과 환란을 의 세월들이 있었지만 고 난과 환란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 다.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높이 주셨 습니다. 인간생활에는 불운 혹은 재난이 종종 있 습니다. 옛날 사람에게도 있었고 현대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슨 불행이나 슬픔을 당한 후에 하 나님을 원망하는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라”우리 가정은 이 재난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서 이의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7월 16일 / 시73편 1-18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364장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도 우리 을 가까이 하십니다. 세상의 좋은 것 이 많으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 다.
전능하신 우리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 모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월 17일 / 요9:1-12 인간의 고통 찬송:332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면서 소경 된 결인에 대 해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혹은 자기 자신의 죄입 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히 고난 당할때 그 사람의 배 후에 특별한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과거의 어떤 원인을 찾는 문명적 견지보다 현재 무슨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명 적 견지에서 인간고를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은 언제나 지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수난자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도와주 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7월 18일 / 눅18:1-8 기도의 생활 찬송:480장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는 기도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도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지 않 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절실히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함은 위기 를 당해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약속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 낙심 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기도 에 응답 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신앙 의 정도가 부족하여 뜻을 완전히 분별치 못할지라 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적당하게 응답하

여 주십니다.

7월 19일 / 고전3:1-15 교회란 무엇인가 찬송:245장

교회는 본래 회합어로 ‘예클레시아’라고 하여 성별된 자의 모임이요,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 도의 신부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설되 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교 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 교회는 보이는 지상 현실 교 회를 통하여 진리를 전파하고 천국을 건설합니다. 한 길을 더 나아가 교회로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아 주 타계계적인 듯하나 실상은 가장 현실적인 것입 니다.
교회가 서 있는 곳에 개인적 구원과 사회적 변 화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서는 곳에 새로운 부흥과 정화 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교회는 건전한 국가의 초석이 되는 것입 니다. 교회는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의 구원 이며 안식처며 피난처입니다.
모든 가정이 교회에 대하여 아는 것도 중요하지 마는 각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 가정교회의 본분을 다하여야겠습니다.

7월 20일 / 발2:1-11 한마음 찬송:305장

요즘 촛불집회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또한 촛불 반대 집회로 연일 일어납니다.
왜 나라나 가정에 분규가 일어납니까? 서로 자 신의 주장과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 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오 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 어 종의 형제를 가져...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 록하였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 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이며 누가 내 자매 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가 내 형 제며 그가 내 자매가 아니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의 화평한 생활이 가능합 니다. 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산돌교회 창립 30주년 맞아 기념행사

권사 집사임직 및 장로 권사은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산돌교회가 6월 29일 오후 3시 창립 30주년 기념 권사 집사 임직과 장로 권사 은퇴식을 갖고 사명감당에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김철현 목사(인천 동노회장)가 “교회 일꾼의 자세” 제하의 설교말씀을 전했고, 권사와 안수집사 임직식에 이어 이창열 장로와 이상희 권사의 은퇴식이 거 행됐다.

손달의 목사(서문교회는) 임직자 권 면을 통해, ‘오늘 서약내용을 평생 가 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 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고’ 전했다.

김상철 목사(신일교회는) ‘교회와 담임목사를 위해 더 기도하는 성도가 되 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라고’ 교우들을 향해 권면했다. 금년에 은퇴한 이창열 장로 와 이상희 권사는 부부로 담임목사로

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이다.
그 뒤를 이어 헌신의 분을 보일 임직 자들은 김삼석 황의구 송수일 배운순 홍은혁 김귀성 공성광 노정호 김정기 이창희 구지원 김홍은 안수집사와 안 명자 김희수 이영자 이종미 정성희 박 경숙 박경은 박정혜 노명옥 송나희 유 지수 김의자 최연숙 김영란 문태순 윤 세열 안원숙 권성숙 유순옥 권사다. 이 들은 금번 임직을 기념해, 해외선교를 위한 대지 구입비를 헌금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 채로온 기념행사를 갖고 기쁨과 감사 를 나누고 있는 산돌교회는 이날 임직 식 외에도 지난 5월에는 교회창립 30 년 및 김영준 목사 근속 30년 기념감사 예배를 드린 바 있고, 30년 기념교회 세우기, 성지순례, 산돌교회 30년사 발간, 창립 30년 기념 찬양 CD발행, 필 사성경 봉헌 등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Youth Revival Conference가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교,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갖게 된다. 담임 김영준 목사 는 이날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크리스천뉴스 chr21c 제공

6면에서 계속

인터넷 여론 믿을 수 있나

그런데 과연 인터넷 여론을 믿을 수 있는가. 기독교 전통의 ‘죄의식의 문 화’와는 달리 우리는 ‘부끄러움의 문 화’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나 원칙 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 에 자기 얼굴이 드러나면 집값지만 혼 자 있거나 익명성이 보장되면 아비하 고 부끄러운 것을 쉽게 해버린다. 옛 선비들이 혼자 있을 때도 행동을 삼가 는 덕(慎獨)을 가르쳤지만 체면과 의식 을 강조하는 전통에선 효력이 별로 없 었다.

이런 문화에선 컴퓨터 앞에 홀로 앉 아 이틀을 숨긴 채 즉흥적으로 써 올린 글이 무책임하고 감정적이 되기 매우 쉽다. 바로 그 때문이라도 우리나라에 선 인터넷 실명제가 꼭 필요하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실명제는 수사 를 통해서만 실명이 드러나므로 실제 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 형식에도 실명 을 노출해야 제시된 의견을 믿을 수 있 다.

익명이라야 자유롭고 솔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솔직하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더구나 감정의 표현은 솔직하든 말든 믿을 것이 못 된 다. 감정은 행동하게 하는 힘은 있으나 쉽게 변하고, 감정적으로 본 세상은 객 관적일 수 없다. 인터넷 여론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주로 젊은이들이 만들 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객관성과 합리 성이 약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서 내리신 벌 가운데에는 어린아이가 통 치자가 되는 것이 있다. 감정적이고 미 숙한 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큰 지 주가 아닐 수 없다. 브호보와 왕은 노 인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의견에 따라 다스리다가 나라를 돌로 쪼개고 말았다. 예술과 학문에는 젊은 이의 감수성과 창조력이 필요하나 나 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데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

인터넷 낙관론자들은 주관적이고 왜곡된 의견이라도 인터넷에 올라오 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토론하 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되고 보완된다 고 말한다. 이론적으로 그럴 듯하나 증

명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어 떤 의견이 옳기 때문에 동의하고 옳지 않기 때문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마 음에 들면 칭찬하고 들지 않으면 욕하 고 비판한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생각이 수정 되긴커녕 비슷하게 잘못된 다른 사람 의 의견으로 더욱 강화되어 독선으로 고착된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는 정 제되지 않은 무수한 감정 폭발이 수정 도 견제도 되지 않은 채 거북한 확산 으로 무장되어 활보하고 있다. 인터넷 덕으로 사회가 통합되고 건강한 의견 이 형성되긴커녕 오히려 더 분열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여론은 사실을 중시하 는 성숙한 전문가가 비판을 의식하며 심사숙고하여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야 만들어질 수 있 다.

(코렐데오닷컴)

결혼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가정에 좋은 소식!



예물, 한복, 침구, 신혼여행, 웨딩드레스, 예식장을 한곳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금, 다이아몬드를 장로님가정에 도매가격으로 해 드립니다.
교회 임직식 한복은 특별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방 어느 곳에서 오셔도 예산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맥스웨딩컨설팅 고객센터 : 02) 3448-1351~3 (강북센터)

* 금, 다이아몬드 도매구입 및 상담문의 *
임평소 장로 : HP. 011-432-2122

토탈웨딩 에뚜알

대표 강정순

대표전화 02-2272-5261, 735-5269
http://weddingetoile1.cafe24.com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경찰공제회관 12층 전관
(1호선 종로5가역 12번 출구 도보 3분)

본지 기자 및 지사 모집

기자: 약간명

전국지사

자격: 세레 교인 우대

광고국: 약간명

학력: 대졸(고졸)

본사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진(여권) 3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26 무궁화 빌딩 12층
문의)02)741-0031 / 011-468-6574

통일전망대에서 제21차 6.25 상기 구국기도회 가져



제 21차 6.25 상기 구국기도회를 자유로 통일 전망대에서 지난 6.25 일 가졌다. 이날 준비위원장 조나단 목사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국부협사무총장 이준영 목사의 기도 와(1)한국천양울동신학원, (2)호산나 울동천양선교단, 등의 몸 찬양이 있 었으며, 기선협부회장 우선화 목사

가 성경을 봉독하고, 복인천중앙교 회 성가대의 찬양과 “다윗의 집과 사 울의 집”이란 제하의 설교를 국민문 선협 사무총장 박창은 목사의 헌금 기도

가 있었다. 이어 2부 기도회에 들어가 진행위 원장 김인순 선교사가 사회를 맡아 국부협 재무 여성구 목사가 성명서 를 발표하고 특별기도에 들어가 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마하나임부흥 선교회 대표회장 민충만 목사, ②평 화적 통일을 위하여 마하나임부흥선 교협 사무총장 김정원 목사, ③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선협 의전 실장 최희우 목사, ④한국기선협의 성사업을 위하여 시선협 회계 이진 우 목사 등이 기도했다.

또한 기선협수석상임회장 정마암 목사가 축사를, 기선협 상임회장 권 동준 목사가 격려사를, 기선협 상임 총무 박상철 목사가 인사 및 광고를, 기선협 서기 이종성 목사의 구호제 창 (오늘은 민족구원, 내일은 세계선 교)과 부대표회장 조희서 목사 축도 로 6.25 상기 구국기도회가 막을 내 렸다.

성명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제21차 6.25 상시구국기도회에서 현 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 를 발표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추진도 필요하 겠지만 국민의 생활과 가장 민감한 부분인 음식물 문제에 있어서 안전 한 먹거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경찰은 국가의 안 녕과 질서를 도모하여야겠지만 더

큰 불상사의 별미를 제공하지 말아 야 하며 계속되는 촛불집회 참석자 들은 평화적인 준비질서를 지켜서 국민문화 의식을 드높여야 한다.

셋째, 한국기독교 5만 교회, 10만 교역자, 1200만 성도들은 국가에 어 려움이 있을 때 슬로몬의 지혜를 구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므로 6.25 사변과 같은 비극이 한반도에 일어 나지 않도록 발비하는 기회가 되어 야 할 것이다.

2008 6. 25 6.25 상시구국기도회 회원일동 남동자여성구 목사

교회생활

1.주만을 바라보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쉼은 단 겹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 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 지 말라.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 시느니라”(신 16:21-22)

어느 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 해가 아니라면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음을 알게 되면서 한편 하나님 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를 생각하게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에 주신 작지만 소 중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그 직 분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스스로 생각하 면서도, 가끔은 나의 감정이나 느낌으 로만 판단하여 행하는 오류를 반복해 서 범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일이 나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되고 결국은 내가 칭찬받고 나를 위한 일이 되다 보면 오히려 하나 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이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내 자신의 이 틀과 의를 이루려는 잘못된 생각 이것 이 가장 우려할 만한 나의 가장 큰 우 상이 아니겠는가? 더 이상 세워서는 안 될 우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목숨까지도 버렸듯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와 같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바른 성도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의 말씀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진실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안 의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 는 훈련을 끈임 없이 해야 할 것 같다.

2. 예수님 중심의 교회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닌, 세상 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닌 성

경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운영되는 교 회, 예수님 중심의 교회이기를 소망합 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교제와 봉사 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예 배중심의 교회가 되고 그 예배로 인해 은혜받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말 씀으로 무장이 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 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외형 적으로 부풀려 지고, 숫자적으 로 부흥하는 교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 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 본이 바로 선다면 그 이외의 것들은 저 절로 채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때 문득 느끼는 것은 교회도 어 쩌면 정치집단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구

누구 장로님의 가족들... 어느 권사님 의 자제분...어떤 집사님의... 누구누구 그 교회에 뿌리가 없는 일반 성도들이 자칫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 는 이런 줄 세우기가 교회 안에서는 일 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 님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신앙이 좋 다는 몇몇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려 고 한다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다 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좀더 겸손한 신앙으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돕는 그런 파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아직 믿음이 돈독하지 못한 일 반 성도들에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소 외감으로 인해 그 믿음을 허물게 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

요한복음 6장 22~69절 묵상 시편 103편 1~3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 니다. 신앙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십니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믿 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 시므로 믿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즉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 그 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믿고 신 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입니다.

고전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 회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 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 며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환난 과 고통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 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니면 믿음 자체는 없지만 믿는 척 했던 자들은 결국 주님 을 떠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들은 이 시간 말씀에 확신을 갖고 하나 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이 주님을 믿다가 떠났을 까요?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십니 다.

1.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 듣지 못 하기에 떠났습니다. (60절)

60절을 보면 제자들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 셸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 여 주셨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요한복음 6:14절에 그 사람들이 예 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 더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 곧 메시아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 람들, 무려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예수 님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 의 생각은 예수님만 따라 다니면 배불 리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 니다.

요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 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로다...「표적,하나님의 아들이기 때 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위해 따라 다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 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게 주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자신이 살리신다. 42절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 부모를 우리는 아는데 제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3절에 너 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등. 본문 6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절을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 니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 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님을 따라다니다가 떠났습니까? 그것 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되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으 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러나 상황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자들 은 어렵지 않습니다.

눅 29-10절에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 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2.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시지 않 았음으로 떠났습니다. (65절)

본문 65절, 37절, 44절 말씀에 하나 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 수님을 떠난 자들은 왜 떠났을 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주시지 않았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 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수님을 통하여 물들에게 주어진 영생 과 생명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 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가 혹은 하나님 을 믿는 것이 자신의 생존과 가정과 직 장에 장애를 줄 것 같은지 언제든지 믿 음을 버리는 자들일 것이다. 바라기는 그 어떤 때가 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을 영생과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열심 히 충성하고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



박 남 수 목사
시온교회(본지 상임이사)

름으로 축원합니다.

3. 주님을 결단코 떠날 수 없는 자 들이 있습니다. (68절~69절),

67절 말씀에 “너희가 가려느냐? 시 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 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 날 목사가 우 리 가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교회 를 떠나는 자도 있다. 자기 가정에 관 심을 가져 줄 교회로 떠난다는 것입니 다.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것이 가 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증 거 하기 위해 있다면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시대 지도자들 처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백성들 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목회자가 죄나 짓고 교회 헌금이나 축내고 예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고 영생과 생 명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이 임합니다. 69절 말씀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 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들 각자의 고백이 되시 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또한 하 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은 예수 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뉘게 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에 든게 서서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고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교 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헌신하 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 화
꿈

옛말을 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공부한 아들이었는데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어.

나도 아들도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느니라.”
그러자 꿈을 이룬 친구가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네 아들은 나중에 옛말을 하면서 웃을 수 있을거야.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실패의 아픔이 있 었기 때문이거든.

옛날을 그리워하는 삶보다 웃으며 옛말을 하는 삶이 더 멋진 삶이잖아.”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충만한 교회 오산반석교회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생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30	WIVA영재교육	오후 1:00(토)
일파과점	오후6(주일)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행/복/한/사/람/들 * 예/수/인/사/람/들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반석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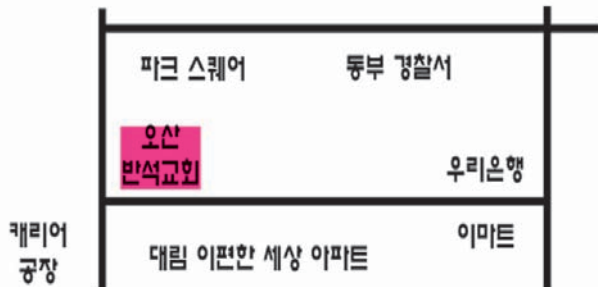
담임목사 김 농 주

경기도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031)378-9349

인생상담 및 신앙상담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교회이전

교회하실분: 평택시 합정동 평택 여중 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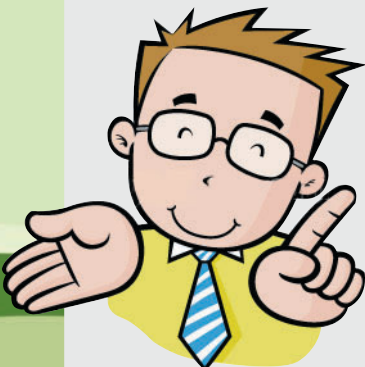
2층 50평 종탑, 유아실 1 식당1

옥탑방 사무실1 화장실 2

보증금 3000/60만원 보 5000/40만원

사 유: 확장이전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010-8585-9137

권목사



예장(웨신) 2박 3일 전국교역자 수련회 가져

교단 발전을 위한 화합과 일치. 은혜롭게 마쳤다



예신총회(총회장 장창수목사)전국 교역자 수련회가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동해시 힐튼 관광호텔에서 총회 교역자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박3일 동안 교단 발전을 위한 단합과 일치에 이어 아주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3:14라는 주제 아래 18개 노회에서 일부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였으나, 지난해 합동했던 개신 측 목회자 70여명이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소하고 예신의 정통성과 뿌리를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다지는 단합의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총회 임원회가 중심이 되어 모두 18개 노회가 힘을 합쳐 행사기간 내내 화목과 연합

으로 아름다운 모습의 성공적인 행사로 마칠게 되었다. 첫날 개회예배에는 서기 이흥규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중부노회장 최은수목사의 대표기도와 경중노회장 한현석목사의 성경봉독, 남서울노회 중창단의 특송에 이어 총회장 장창수목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3:14라는 설교제목으로 '총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예신총회를 끝까지 지켜나가 줄 것을 당부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자게 전진해나가지고 당부하였다. 총회고문 김용진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친 후, 곧이어 장창수목사의 인도로 성령충

만한 찬양축제가 이어졌다. 다음날 아침 6시 30분에 드려진 경건예배는, 수도노회장 김병수목사 사회, 강동노회장 장규남목사 기도, 남부노회장 조광표목사 설교, 총회고문 정재규목사의 축도로 마친 후, 아침식사와 휴식시간을 가진 후, 총회고문 이동우목사가 성례전에 대하여, 기독교장제문화와 상례에 대하여 수원노회 박철호목사(상조연합회 상임의장)가 각각 특강에 나서 총회원 모두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중식이후에 각 노회별, 개인별, 탁구대회와 볼링대회가 있었다. 탁구와 볼링에 각각 14개 노회가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펼친 결과, 탁구 개인전 1등은 한서노회 이영종목사가, 단체전은 중앙노회, 볼링은 개인전에서 박노경목사가 1등을 차지하였으며, 단체전 역시 수도노회가 휩쓸었다. 저녁 시간에는 현대사회 코칭 리더십 특강으로 교회정보 선종목목사가 코칭리더십에 관한 특강을 하였으며, 찬양과 함께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총회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특히 노회별로 삼삼오오 모여 총회 발전에 대한 열띤 논의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폐회

예배는 한서노회장 이재갑목사의 사회로 중앙노회장 정일량목사의 대표기도, 서울노회장 김인규목사의 성경봉독, 부총회장 장영기목사의 설교와 총회장 장창수목사의 축도로 폐회예배를 마친 후, 곧이어 볼링과 탁구대회 우승자들에게 대한 시상식을 갖고 푸짐한 상품을 전달하였으며, 특별히 적극적이며 헌신적으로 협조를 다해준 강원노회(노회장 이영택목사)에 봉사상을 수여했다. 강원노회는 지난 4월경에 영입된 노회로서 강원지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총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노회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번 수련회 행사에서도 장소섭의와 체육행사 준비 및 행사진행 협조로 크게 기여한바 있다. 총회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이 되기까지 총회장 장창수 목사를 중심으로 부총회장 장영기 목사, 총무 장승현 목사, 서기 이흥규 목사, 회계 신연창 목사, 회의록서기 김승년 목사 등이 힘을 모았으며, 그의 총회 임원과 중경 및 고문, 각 노회 임원 등이 찬조해 주어 교단하기수련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일치 단결을 이루었다.

게시록은 보이시려고 주신 것, 덮으라고 주신것 아니다

변종길 교수, 제2회 제주신학강좌에서 강의

제주노회 연합집회와 제2회 제주신학강좌가 지난 6월 22일(주일)과 23일(월) 양일간 신서귀포교회(김대룡 목사)와 세계평화의섬교회(방다락 목사)에서 있었다. 제주지역 고신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제주노회 부노회장 방다락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연합집회에서는 찬양 고신역사기념관에 방문해서만 볼 수 있는 '한국교회와 교단의 태동, 비전' 영상을 상영하였고, 신서귀포 교회 김대룡 목사가 기도하였다.

이어 과학처장 한정건 교수가 '믿음으로 얻는 의로 3장 19-2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방다락 목사의 인도로 제주노회의 부흥, 신학대학원, 고신교회의 진정한 회개를 통한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정건 교수는 설교를 통해 "‘구속’이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대신 주신 것과 함께 잃은 땅(기쁨)을 대신해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했으므로 그것을 믿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칭의)'을 얻게 되었으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돌려받았음"을 강조하였다.

이날은 특별히 제주노회연합집회를 위해 신서귀포교회 찬양단과 제주서광교회 사랑샘 중창단이 특송을 하였다.

세계평화의섬교회에서 열린 제2회 제주신학강좌에서는 방다락 목사의 사회, 제주노회장 송배희 목사의 환영사, 제주 기독교 100주년 기념 위원회 부대회장 오공익 목사(제주중문교회)의 축사, 제주노회 서기 조남두 목사의 기도로 시작하였다.

오공익 목사는 축사를 통해 "제주 기독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고신교단에서 신학강좌를 가지게 됨에 축하를 드린다. 또한 교단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함께 모여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너무나 기쁘다. 앞으로 제주신학강좌가 정착화 되어 바른 신학

을 통한 바른 교회 건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강좌로 한정건 교수가 '설교를 위한 성경의 맥잡기'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한정건 교수는 강의를 통해 "목회자들이 모범적(성경의 어떤 인물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형태)으로 설교를 할 때에 본문이 쓰인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하며, 인간중심적인 설교가 되며, 또 윤리적인 설교가 되는 아쉬움"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계시역사적인 설교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계시역사의 흐름을 중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풀이하여 나갔다.

단체사진행결과 세계평화의 섬교회(방다락 목사)가 제공한 점심식사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강좌에서는 변종길 교수가 '요한계시록과 이단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변종길 교수는 강의를 통해 신전지 운동과 같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것이지 덮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도의 상징으로 표현된 환상들, 예언적 언어들, 상징적인 숫자들 등 성경 전체의 조명하에 조심스럽게 풀지 아니하면 자칫 이상한 곳으로 빠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고 말하였다.

이날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표자와 목회자들 간에 진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

어졌다. 제주노회장 송배희 목사는 "작년에 신학대학원으로부터 제주노회설립을 기념하여 신학대학원과 제주노회가 공동으로 신학포럼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고 밀려오는 감격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제주신학포럼을 정례화하여 제주지역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부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2006년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8개 지역에서 신학포럼을 개최하여 2008년 현재까지 지역 목회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제주노회 설립을 기념하여 제1회 제주신학포럼 및 연합집회를 가졌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번 '제주신학강좌'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

신학포럼 사회를 맡은 제주부노회장 방다락 목사는 "제주기독교 100주년이 되는 해에 제주신학강좌를 개최할 수 있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제 제주신학포럼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이지역에서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유산을 나누어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제주신학강좌와 금요연합집회는 제주지역 일선 목회자들과 신학교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넘어 제주지역 고신교회 성도들에게 고신교회와 신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함께 제주지역 교회의 성장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발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코람데오닷컴제공)

서산중앙병원, 목회자들에게 찰보리쌀 선물

당진, 서산, 태안 6백여 교회 목회자들에게 4,000Kg 선물

충남 서산중앙병원 (병원장 조준희 장로)은 맥주감사절을 맞아 서산, 당진, 태안 600여 교회 목회자들에게 찰보리쌀 4,000kg을 전달했다. 조준희 원장은 찰보리쌀을 전달하면서 "서산중앙병원이 기독교 병원으로서 개원 이래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지역교회와 목회자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의 덕택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원장은 이어 "우리 병원의 큰 성과는 의료진을 끊임없이 최고의 의사로 바꾼 일

이며,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협약 병원인 서울 삼성병원, 인천 길병원, 평촌 한림병원으로 즉시 이동하여 입원 치료 할수 있도록 협약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신중앙병원의 의료선교팀은 지역 기독교연합 발전과 열방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박남교 목사(서산중앙병원 상임이사)는 "인도네시아 등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와서 종합건강검진도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바랐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1) 무엇이 썩는 양식인가?
썩는 양식이란 세월이 흐르면 가치가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채워도 채워도 만족감 으로부터 주지 못하는 세상 것이 썩을 양식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돈, 명예, 부귀, 영화, 권력, 세속적인 행복 이런 것들이다.

2) 무엇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가 예수님

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배부름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3)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가장 큰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

총회 일정: 2008년 9월 22일

장 소: 미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

준목고시 합격자 연수교육

장 소: 오산 광성교회(총회장 장창수 목사시무)

2008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예배안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중앙교회

표어: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자



주일 낮: 오전 11시 /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저녁 7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주일학교: 오전 9시 30분 / 학생회: (토) 저녁 7시

서울시 구로구 구로 5동 531-4번지

☎. (02) 838-2208 팩스 (02) 838-2207

열두광주리 기도원 원장 김평호 목사 부흥회 일정



<7월 부흥성회>

- 6월 30일~7월 4일: 물댄동산기도원 (이상옥 목사 시무)
- 7월 6일: 장안 명성교회 남전도헌신예배 (최남복 목사 시무)
- 7월 7일 ~ 7월 9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가성회 (원장 김평호 목사)
- 7월 21일 ~ 7월 24일: 대전 응답기도원 (임찬양 목사 시무)
- 7월 28일 ~ 7월 31일: 하기수련회연합집회 (원장 김평호 목사)

매주 화요일 5시 한국천양울동신학원 집회
매월 첫 주 월요일 보아스 사랑의 집 집회
매월 셋째 수요일 수원 성령교회 연합집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350번지
☎. 031)535-6795, 010-8411-0191

문의전화 전국어디서나
1588-0691



(주)영광기업 창립 15주년 감사 대잔치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017-332-3217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동 디지털 칼라 주보 복합기 5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컬러디지털(주보)복합기

Color 451C
교회의 모든 인쇄물을
단 한대로 OK!
분당 컬러11매, 흑백45매 출력
자동 양면 복사 · 출력
이따임팅 기능

소비자가격 13,000,000원
→ **4,900,000원**
(영광기계 및 중고보상, 옵션별도)

Color 352/252
분당 컬러, 흑백 35매 고속출력
1m20cm X 31cm 배너인쇄
8가지 기능이 한 대에
자동 양면 복사 · 출력
친환경적 고화질 중합토너

소비자가격 18,000,000원
→ **6,900,000원**
(영광기계 및 중고보상, 옵션별도)
소비자가격 13,000,000원
→ **5,900,000원**

전자동 디지털 주보 인쇄기

DP-0691

분당 50~180매의 초고속 인쇄
반 영구적인 뛰어난 내구성
고효율, 저비용(1장 1원에 도전)
고해상도 사진/문자 인쇄
PC 인터페이스 기본 장착

소비자가격 ~~12,000,000원~~
→ **4,900,000원**
(영광기계 및 중고보상)



접지기 · 중철기



중철제본 & 접지기
B5~A3까지 중철제본 · 접지
1장 이상의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페이지 가능

소비자가격 4,400,000원 → **950,000원**



주보접지기
2, 3, 4단 주보 한번에 접지
접히는 간격 조절 가능
분당 120매 접지

소비자가격 12,000,000원 → **950,000원**

- ☐ 8가지 기능을 한대로!
- ☐ 모든 부서 인쇄물을 단 한대로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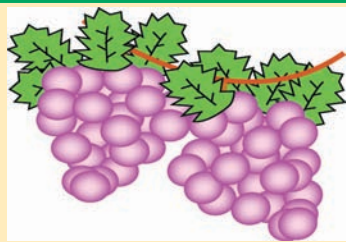


주식 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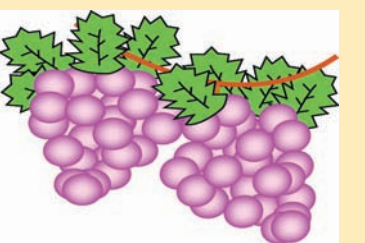
종로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1-3(100주년기념관 앞)
Tel.02)762-8572 Fax.02)764-5893

본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47-9 영광빌딩
Tel.02)2065-2580 Fax.02)2066-1005

www.jubo114.com



2008년도 소진우 목사 부흥성회 일정



강사 소진우 목사
☎.011-267-1434

약 력

- 로고스 세계부흥선교회 부총재
- 열방부흥선교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컬럼리스트
- 월드미션문화신문 이사장
- 예복교회 담임

7 월

- 6/30-5 중국선교집회
- 7-10 엘리야수양관양정석 원장
- 14-17 아멘기도원박산영 원장
- 21-25
- 28-30 방주교회(장미선 목사)

8 월

- 4-7 한열산기도원(이영금 부원장)
- 18-2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 25-30 특별심야기도대성회(예복교회)

9 월

- 1-4 온누리복음화수양회(엄기호 총재)
- 8-10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 15-18 추석주간
- 22-25 교단총회
- 29-10/1 인천경성교회(윤양표목사)

11 월

- 3-6 일산금란교회(주성민목사)
- 10-12 화성제일교회(우남호목사)
- 17-28 북미지역연합성회(씨애틀, 벤쿠버)

10 월

- 6-9 성지교회(김성중 목사)
- 13-14 정가노회
- 14-16 시흥성민교회(안지희 목사)
- 19-22 성산중앙교회(정선일 목사)
- 27-29 평택중앙교회(김옥복 목사)

12 월

- 1-3 신광침례교회(조주행 목사)
- 8-11 마정성결교회(김달영 목사)
- 15-17 성은교회(유병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5번지
대표전화: 02)3391-9676